

# 현 교육감이나 시민경선 단일후보나... 1대 1 구도

##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감 선거구도는 장휘국(68) 현 교육감과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을 통한 단일후보' 간 1대 1 구도로 판이 짜이고 있다.

장 교육감이 오는 5월 25일 후보자 등록 시한까지 현직을 유지한 뒤 3선 도전에 나서기로 한 반면 나머지 입지자 3명이 나란히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추진위원회(이하 시민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 입지자는 장 교육감, 이정선(59)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56) 전 광주시의원, 최영태(64) 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이다. 각각 중등교사, 교수, 중등교사, 교수 출신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광주교육을 지켜왔다고 자평하며 3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남아야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3선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은 데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불참'에 따른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시민교육감을 자처해온 것과는 다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광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저의 3선 도전과 시민경선



장휘국 현 교육감



이정선 전 총장



정희곤 전 시의원



최영태 전남대교수

## 장휘국 교육감 3선 고지 넘을지 '주목'

## 이정선·정희곤·최영태 시민경선 참여

불참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달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전 총장, 정희곤 전 시의원, 최영태 전대 교수 등 3명은 광주경제정의실천연대 등 광주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경선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선거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지만, 단일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고 탈락할 경우 본선에 나서지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경선을 확정, 선거인단 모집, 투·개표 등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선에 나선 이 전 총장은 14일 그동안 준비해온 공약을 정리한 '광주교육 10대 혁신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광주 시민교육지원청'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설립을 추진키로 한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진로취업, 학교폭력(상담), 학교밖 청소년 등 4개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그는 학교 민주주의 강화, 창의력 확대 위한 혁신교육 확대, 광주형 고교학점제

운영, 무료 안전통학버스 운영, 권역별 문·예·체 중점학교 운영, 광주교육 정령도 1위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선에 뛰어들 최 교수는 광주시민사회단체와 학계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5·18 당시 제기된 헬기 사격 의혹과 무장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파헤쳤다. 최 교수는 지난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은 변화 속도가 더디거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 역량도 크게 떨어졌다"며 "지난 40여 년의 교육·연구·봉사 경력을 살려 광주교육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천하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정 전 시의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전교조 부위원장,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교육 전문가이다. 그는 "광주 교육의 틀을 바꾸고 싶다"며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경선에 뛰어들었다. 정 전 시의원은 "사람들은 대체로 학교 교육만을 얘기한다. 광주는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교교육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명관 주요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조용한 선거... 시민경선으로 판 흔들나

## 유권자 표 결집할지 관심

## '실력광주 회복' 목소리도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감에 맞설 이른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을 통한 단일후보가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감 선거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는 하나 지난 8년간 광주 시교육청을 이끌어온 장 교육감에 대한 지지파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참여하는 시민경선이 잠입없이 얼마나 흥행할 것인가다.

3명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 표를 결집하느냐도 관심이 있다.

경선 주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선출될 단일후보에게 아름다운 승복을 하게 된다면, 대중적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장 교육감의 3선을 저지할 수 있는 대항

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는 참여 후보 3명과 함께 금명간 경선표를 확정짓고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후보들이 장 교육감 등장 이후 잊혀져가는 '실력광주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선거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이 실력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문화를 경계하는 기류가 팽배해졌지만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상당수는 여전히 '공부도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에 맞설 3명의 후보 누구도 현재까지는 '실력광주 회복'이라는 향수를 강하게 자극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현 교육감 도지사 출마... 절대강자 없이 3파전 예고

##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선거구도는 3선을 바라보던 장만채 현 전남도교육감이 전남도지사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절대강자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에 나설 입지자는 고석규(62) 전 목포대 총장, 오인성(62) 전 나주교육장, 장석웅(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이다. 각각 대학교수, 초등교사, 중등교사 출신이다.

입지자 3명 가운데 장 전 전교조 위원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남지역 3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전남 민주교육감 단일후보 추대위 경선'을 치르면서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각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가 하면,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등 대외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사 출신인 장 전 위원장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50% 여성할당 ▲교육감 집무실 1층 이전, 소통강화 ▲(작은학교를 살리고 학생들 수업 질 보장을 위한) 전남 22개 시·군, 제한적 공동학군제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고석규 전 총장



오인성 전 교육장



장석웅 전 위원장

## "아이들에 좋은 교육환경 만들어 주겠다"

## 고석규·오인성·장석웅 입지자 경쟁 구도

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전남도교육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선거판에 뛰어 들었다.

그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교육이, 교실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교육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잘 가르치고 잘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남의 어촌, 농촌, 산촌, 도심의 아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포용적 진보, 급격한 진보가 아닌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전 총장은 이날 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요 공약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은 이른바 양강 후보에 맞서 도전하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나서며 "모든 교육 정책 결정시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수업을 창의성, 융합교육에 초점 맞추겠다."

특히 전남도 내 학생들 30%가량은 경제·정서적·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보듬고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전 교육장은 자신의 이념성향과 관련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필요 없다.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편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교육장은 오는 20일에 출마선언을 하고 주요 공약을 도민들에게 발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문재인 바람이 세냐 혁신바람이 세냐

## 정당 간판없는 교육감 선거

## 정치 바람 불면 판도 요동

"문재인 바람이 부느냐", '전남교육 혁신 바람이 부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임이다.

14일 3파전으로 좁혀지는 전남도교육감 선거구도를 거론하면서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가 언급한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이 진보성향의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경선을 통해 구신서 전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정연국 전 정산중 교장 등 2명을 누르고 단일화 후보로 선정되면서 세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 간판 없이 뛰는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바람이 불면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장 전 위원장의 경우 경선을 거치며 주요 공약을 발표하거나 구체화하

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불 경우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측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고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최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장직을 유지하는 등 당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중도·실용주의 정책과 달리 교육청 혁신을 바라는 돌풍이 불어올 경우 전남민주교육감 단일후보인 장 전 위원장으로 표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장 전 교육감이 교육청 간부공무원 50% 여성할당 등 각종 혁신공약을 임기 중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 건물: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 건물: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 건물: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 건물: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 건물: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 건물: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 건물: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층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 건물: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596,70㎡ 건물: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병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 건물: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 건물: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 건물: 3,998,33㎡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340,4㎡ 건물: 510,09㎡ 감평가: 721,968,950원 최저가: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27,403㎡ 건물: 1,454,36㎡ 감평가: 1,706,257,600원 최저가: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2,329㎡ 건물: 844,08㎡ 감평가: 1,024,812,000원 최저가: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3,319㎡ 건물: 2,480,7㎡ 감평가: 3,024,288,500원 최저가: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3,673㎡ 건물: 3,037,52㎡ 감평가: 3,744,229,960원 최저가: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